

교정 선후배 공무원 연대·역할 재확인 | 재향교정동우회 이사회·정기총회

송영삼 회장 재추대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회장 송영삼)는 23일 서울 동보성회관에서 2026년도 이사회 및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송영삼 회장을 재추대하는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교정 선후배 공무원들의 연대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각지 지회장 임원, 대의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와 교정 공제회, 정우회, 교정 원로 인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총회는 내빈 소개와 국민예배, 순국선열 및 순직 교도관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모범 지회 및 모범 회원 표창, 회무 보고, 안전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초반에는 교정동우회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단체와 회원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부산 강서지회와 전주지회가 모범 지회로 선정됐고, 장원지회 김종우 회원과 청주지회 서동식 회원, 경주지회 정석준 회원이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교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동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영삼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정동우회가 창립 43주년 법정단체 지정 13주년을 맞아 회원 간 친목과 봉사, 교정 교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출소자의 원활한 재사회화와 수용자 교정교화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동우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한 해 지회별 총회와 간담회 개최, 수용자 가족 지원 산물 대응 교정기관 격려,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등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흥연 교정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이 오늘날 교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후배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교정공무원 보전·복지 강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23일 서울 동보성회관에서 2026년도 이사회 및 제43회 정기총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 직급 체계 개선, 인력 확충과 AI 기반 채용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교정 조직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마약사범 재활기관 신설과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등 점진화 정책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회무 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가 전국 37개 지회 회원 3,730여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용자 가족 지원, 순직 교도관 추모, 교정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쳤을 성과가 소개됐다.

안전 심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도 가결됐다. 올해 동우회는 회원 복지 증진과 교정교화 참여 확대, 외부 홍보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기 만료에 따른 제22기 임원 선출에서 송영삼 회

장이 연임됐으며 부회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됐다.

아울러 충남 지역 조직 확대를 위한 서산지회 설립안도 승인돼 전국 조직망이 한층 강화됐다.

정기총회는 선·후배 교정공무원 간 유대와 교정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자 교정 발전을 위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참석자들은 (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가 축적된 경험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교정행정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단체로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회를 마친 회원들은 오찬을 하며 오랜 동료와 선배배들과 재회하며 교정 현장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기는 한편, 교정 가족 공동체로서의 연대와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로 거듭나기로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우석대, 학군장교 임관 축하... 승급·입단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학군단이 23일 전주캠퍼스 대학본관 5층 우석홀에서 '학군장교 임관 축하 및 승급·입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김광석 제35보병사단장, 전용덕 학생취업처장 직무대리, 김지훈 학군단장, 조익석 ROTC 동문회장, 학부부 등이 참석해 임관자와 승급·입단 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64기 정현우(군사학과 4년) 후보생의 29명이 임관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65기 이세현(군사학과 3년) 후보생의 33명이 승급했으며, 66기 김영서(군사외보학과 2년) 후보생의 28명이 새로 입단했다.

각종 표창도 이어졌다. 황인용(소방방재학과 4년) 후보생의 2명이 우석대학교 총장상을, 강예진(군사외보학과 4년) 후보생의 1명이 제35보병사단장상을 수상했다. 정현우(군사학과 4년) 후보생은 육군참모총장상을, 도지은(군사외보학과 4년) 후보생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상을 받았다. 길은결(체육학과 4년) 후보생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연장상을, 송형택(군사기술학과 4년) 후보생의 1명은 우석대학교 학군단장상을 수상했다. 박무결(소방방재학과 4년) 후보생은 ROTC 중앙회장상을, 변희정(군사학과 4년) 후보생은 우석대학교 ROTC 동문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박노준 총장은 "임관과 승급 입단을 맞은 모든 후보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여경협 전북, 중기 시책설명회·리더십스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는 최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및 1차 리더십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사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회 회원 70여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책설명회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조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공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정책자금과 수출, 기술개발, 여성기업 육성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 진입 절차와 전략을 안내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인정 바우처와 AI 활용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 열린 2월 월례회에서는 1월 재무보고와 회무보고가 진행됐고, 회원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공유됐다. 또한 신입회원 소개 시간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전국소방기술경연 준비 돌입

남원소방서는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에 출전할 남원 최고의 철인들을 선별하고 본격적인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소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방 조직 내 최고의 경연장으로, 남원소방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구조대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별 분야는 △팀 종목 4개(응급구조, 신속구조팀, 생활안전구조, 소방드론)와 △개인 종목 2개(최강소방관, 몸짱소방관) 등 총 6개 종목으로, 남원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소방사 내 설치된 다양한 훈련 구조물들을 활용해 대회 대비 실전형 훈련에 매진하며 구조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소방관들의 구조 장비 숙달과 체력 단련으로 다져진 땀방울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남원소방서 박성준 구조대장은 "이번 대회 준비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혹독한 환경에서도 시민을 구조할 수 있는 강한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라며, 베테랑 구조대원들의 경험과 젊은 패기를 모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남원소방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하이퍼뉴로텍, 기부금 전달

(주)하이퍼뉴로텍(대표이사 허선아)이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주)하이퍼뉴로텍은 최근 옥서지역 아동센터에 현금 25만원을 기부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은 옥서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이미화 센터장과 허선아 대표이사가 참석해 기부 취지와 지역 아동 복지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센터 측은 전달받은 기부금을 아동들의 복지 증진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하이퍼뉴로텍은 이번 기부가 단순한 일회성 자선 활동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ESG 경영 가운데 'S(사회)'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허선아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아동센터 기부를 비롯해 재난 구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하이퍼뉴로텍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산=김만호 기자



신동열 운봉애향회장,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신동열 운봉애향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평소 지역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아온 신동열 회장이 내 고향 남원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택했으며, 신 회장은 "내 고향 남원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웃이 서로 돕는 따뜻한 남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동열 회장님의 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로 전한다"며, 기부금은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지 사업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석케미칼, 전북자치도에 이웃돕기 성금 지정기탁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주)정석케미칼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한병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기탁금은 도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성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석케미칼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에 위치한 기업으로, 노면표지용 도료와 특수구역 코팅용 도료,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원료(황화리튬), 우레탄·에폭시 방수바닥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용현 (주)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응원과 신뢰를 다시 지역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성금이 이웃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탁금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은 함께 살자는 마음"이라며 "정석케미칼이 건넨 온기



가 도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에 고루 당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끝까지 행하겠다. 따뜻한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북경영지총협회 회장과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북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노사 협력에 기여해 왔다. 2018년 국무총리 표창과 202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만호 기자

도, 해빙기 안전점검 대비... 3575개소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2026년 해빙기 안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결빙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붕괴·산사태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47일간 8개 분야 357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급경사지, 옹벽, 절토사면, 도로·하천 건설현장, 문화유산 저수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탈면 상태감사·침하·배류 등 지

하수 유출 등) △낙석 발생 우려 구간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여부 △사면 손상 및 낙석 가능성 △옹벽 균열·누수 및 배수로 이물질 퇴적 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흙막이 지보공 변형 △거푸집·동바리 침하·변형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여·방수로 균열 △문화유산 건축물 지반 침하 등 분야별 안전 상태 전반이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로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도내 18개소에 대한 표본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사용 금지, 통제선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학부모 교육

남원시 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22가구 44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아동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고, 학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 현지 교사를 초청해 △초등학교 생활 안내 △학교 적응을 위한 준비 사항 △가정 내 학습지도 방법 △부모·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 종료 후에는 관내 다문화가족 예비 초등학생 22명에게 책가방과 학습용품 세트를 전달해 첫 학교생활의 출발을 응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